

# 대상 현정자 한창우 회장

마루한 그룹(일본)

출생년월일	1931년 2월 15일
출신지	경상남도 삼천포시 (현 사천시)
학력	일본 호세이대학 경제학부 졸업 경남대학교 명예경제학박사, 부산대학교 명예경영학박사 중국 연변대학 명예교수(영어) 중국 연변대학 명예교수(영어) 중국 연변대학 명예교수(영어) 중국 연변대학 명예교수(영어)
회사명	마루한 그룹
개업사	MM international(종합건물관리회사) 마루한 다이닝(외식업) 태평양클럽(골프장) MARUHAN Investment Asia 투자기업(싱가포르) SATHAPANA Bank / Cambodia 상업은행(캄보디아) SATHAPANA Limited / Myanmar 마이크로파이낸스 금융기관(미얀마) MARUHAN Myanmar Company 컨설팅 서비스(미얀마) MARUHAN Cambodia Company 부동산 투자(캄보디아) MARUHAN Japan Bank Lao / Lao PDR 상업은행(라오스)

이주년도	1947년 10월
직원수자	23,144명(2019년 총직원)
매출액	일본엔 1조 7,177억엔(2019년 총매출)

주요 경력	
1993년~현재	사단법인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회장
1993~1999년	재일한국상공회의소 연합회 회장
1999년~현재	재단법인 한월문화재단(현 공익재단법인 한창우·월 문화재단) 이사장
2004년	재외동포재단 제3회 세계한상대회 대회장
2010년~현재	한창우·나카코 교육문화재단 회장
2013년~현재	광역두만강개발(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강원도 명예지사

훈장	
1987년	대한민국 청룡장 수훈
1995년	대한민국 무궁화장 수훈
1999년	일본정부 1등 서보장 수훈
2004년	마상제도공학국 최고공로훈장 수훈
2008년	캄보디아왕국 훈1등 대십자장 수훈



캄보디아 시티파니온행 본점 전경

# ‘삶에 즐거움’을 주는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 키워

## 파친코, 블링장, 영화관, 골프장 운영과 동남아 은행 진출

영어사전 한 권과 쌀 두되를 가지고 1947년 일본에 건너간 한창우 회장은 1948년 호세이대학 경제학부에 입학했다. 당시 동포 단체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는 마루크스와 패션 클래식 음악에 심취했으며 여러모 형편에도 밥값을 아끼기며 예술영화관을 찾는 청년이었다. 그런 취미의 영향으로 1957년 교토 미네야마에 클래식음악 카페 루체(Luce)를 창업했다. 1958년 4월에 자령이 운행하던 파친코 홀을 인수, 미네야마 카지노점을 오픈하여 파친코 사업을 시작한다. 일본 최대의 파친코 홀 사업과 동남아시아 4개국에 2000여 지점의 금융업(은행), 일본 내 18교구의 명문 골프장, 60여 점의 외식업, 블링장, 영화관, 국내외 부동산 및 헬스장 등 사업을 다각화하며 지금의 마루한그룹을 일구었다. 마루한그룹은 청와대 연예, 성악과 노력, 신용과 복지의 정신과,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는다는 창업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일본에 건너 간 때 치장한 영어사전  
미네야마 옛 본사  
클래식음악 카페 루체  
젊은 시절 한창우 회장님

연혁  
1957년 5월 교토 미네야마에 클래식 음악카페 '루체(LUCE)' 창업  
1958년 4월 파친코 '미네야마 카지노점' 개업  
1988년 10월 회사명을 마루한으로 개명하고 본사를 교토로 이전  
1996년 8월 MM international(종합건물관리회사) 설립  
2000년 12월 도쿄 이케부쿠로에 영화관 新文芸座(신분계이자) 오픈

2002년 2월 파친코 홀 100점 달성  
2003년 4월 마루한 다이닝 설립(외식업)  
2008년 5월 카보디아 최초 일본계 상업은행 설립(현 시티파니온행)  
2013년 2월 라オス 마루한자판뱅크 설립  
2014년 3월 일본 전국에 골프장을 운영하는 파친코 홀 300점 돌파  
2014년 4월 태평양클럽 인수경영  
2016년 5월 마루한벤처파트너스 설립, 벤처캐피탈 분야 진출

## 43세 때 빚진 60억엔을 10년만에 상환하다

파친코 홀과 레스토랑, 골프연습장 등을 경영하던 39세 때 거액을 빌려 1967년에 흑고현 도요오카에 블링장 사업을 시작, 1972년에는 시즈오카에 120평이의 거대 블링장을 개장했다. 그러나 석유파동 등 세계 경제 공황으로 레저산업이 직면하면서 1973년 부채가 60억 엔으로 불어났다. 한때 자살도 생각했다. 그러나 믿고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책임을 넘길 수 없어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했다. 블링장을 쇼핑센터로 재개장했지만 신용치 않았다. 주변 친구는 부도를 내라고 권하지만, 금융기관을 찾다가 자신의 통장과 인감 등기부 등 전 재산을 내놓으면서 어떻게든 갚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10년 만에 전액 상환했다.

가액의 빚을 갚을 수 있었던 것은 1975년부터 고도 경제성장으로 저기증 붐이 일때 고도에 대규모 주차장을 갖춘 파친코 홀을 개설한 것이 대성공을 거둔 덕분이다. 자신의 출 경영 노하우를 매뉴얼화하여 직원들에게 철저히 교육했다. 한창우를 무한 복제하는 방식으로 파친코 홀을 확대했다. 한창우 회장은 당시 파친코에 대한 어두운 이미지를 깨는 대장정을 모색했다. 기존의 파친코 이미지는 틸세, 어두움과 누추함, 시끄러움, 꽉 찬 담배 연기로 기득했으나 투명한 경영체계 확립과 TV, CD레이저 등 멀티미디어가 부착된 기계 등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파친코 이미지를 건전한 분위기로 전면 바꿨다. 이러한 혁신에 힘입어 2005년에 매출액 1조 원을 달성했다.



호고현 도요오카 대형 블링장  
2005년 매출 1조원 달성 기념 행사  
김보디아 음악 훈1등 대십자상 수훈

## 실력과 교양, 신용으로 일본인으로부터 존경받는 사업가로…

한창우 회장이 일본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실력과 교양, 신용 등을 갖췄기 때문이다. 누구보다 몇 배 많은 노력을 하였고,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마루한은 일본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 진출하였다. 그리고 해외 금융업 및 개발 사업에도 뛰어들었다. 2006년부터 김보디아에 진출, 이후한자판뱅크를 설립했다. 2016년에 시티파니온행의 합병을 통해 김보디아 2위인 시티파니온뱅크를 설립했다. 그는 또 2013년 2월 리오스에 마루한자판뱅크를, 2015년 8월에 미얀마에 은행을 세웠다. 마루한 그룹은 프놈펜 노로돔 대로에 지하 4층, 지상 10층 연면적 3만 313㎡ 규모의 시티파니온행 본점 공사를 착공, 2020년 9월에 준공 예정이다. 꿈에도 주식회사 마루한 같은 금을 설립했으며 상기포르에도 아시아 투자회사를 세웠다. 한국에서는 인천광역시 영종도 복합레저개발사업인 세계한상 드림아일랜드에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 경영으로 한창우 회장은 미국 경제집지 포브스가 발표한 2017년 일본 50대 부호 명단에서 36억 달러의 재산으로 11위를 차지했다.



마루한 신세계계 전경  
김보디아 음악 훈1등 대십자상 수훈  
마루한 신세계계 전경

## 조국 한국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에서 사회 공헌 활동을

한창우 회장은 재일 동포사회와 고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일정을 서고 있다. 그는 1993년 김덕룡이사장과 함께 (사)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를 창설했다. 또한 재외동포재단 총회 2004년 세계한상대회 대회장을 역임, 이와 함께 재일한국상공회의소 연합회 회장을 맡았다. 1990년에 시재를 떠난 한국문화연구진출재단(현 공익재단법인 한창우·월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학술, 문화, 국제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개인과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남 사천시에 재임직인 한창우·나카코 교육문화재단을 설립,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밖에 강원도가 주도하는 광역두만강 개발계획(GTI) 국제무역 투자박람회 조직 위원장을 맡고 있다.

88서울 올림픽 성공에 기여한 공적으로 대한민국 청룡장(1987)과 한국의 사회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무궁화장(1995)을 각각 수훈했다. 2011년 동일본 지진 복구기금으로 85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로부터는 한일 양국 우호전진에 기여한 공로로 3급 서보장(1999),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마설제도공학국에서 최고 공로훈장(2004)과 캄보디아왕국에서 훈1등 대십자상(2008)을 받기도 했다.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서보장  
대한민국 국민훈장 무궁화장  
미술공학 최고로훈장  
마루한벤처파트너스 설립, 벤처캐피탈 분야 진출